

TEL (0564) 31-8893(代)

## 二・八獨立宣言의 組織背景 ①

業生 祝賀會에 百三十名  
이 出席할 程度였다. 이  
祝賀會에서 김도연(慶大  
生)은 卒業生들에게 “証  
書”가 아니라 “人格을 祝  
賀”한다고 말하고 “帰國  
後 同胞를 救濟”할것을  
要求했다. 이에대하여 卒  
業生 현상윤(早大生)은  
“帰國後 誠心誠意로 民  
族을 위하여 努力”할것  
을 誓約하였다.

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館  
은 學友會나 다른 會가 主  
催하는 모임의 場所로도  
번번히 使用되었다. 그리

一九〇六年十一月、東京 朝鮮基督教青年會  
 一九〇九年一月 大韓性、德育의 向上을 目的으로 하여、중한基督教青年會友會로서 設立되었다。  
 一九一一年五月 朝鮮留學生 親睦會 이 組織은 万国基督教青年會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었고 活動資金의 大半을 支援받고 있었으며  
 一九一四年一月 在阪朝 鮮留學生學友會 小川町에 西洋式二層建物의 會館을 가지고 있었다.  
 一九一四年四月 京都朝 鮮留學生親睦會의 會館을 가지고 있었다.  
 一九一四年四月 朝鮮女 來이 會를 主재하고 있던  
 子親睦會 來이 會를 主재하고 있던  
 一九一八年에 들어서 이 會는 점점 發展하게 되었다. 會員은 一八〇名을 해 아렸으며、二月에는 新育 万国基督教青年會本部에 事業擴張費 二千元를 要求하였다. 이보다 앞서 一 月의 定期總會에서는 副會長에 이광수、書記에 송재백、體育部長에 이종근、會計에 김철수、親接部위원에 서춘들의 積極한 人選이 選出되었다. 活動도 活發하여 五月에 있는 卒된것을 轉載했다.)

聖書通読牌伝達

名古屋教会

|                    |           |                                                                          |
|--------------------|-----------|--------------------------------------------------------------------------|
| 동同志회               | 一九一七年一月   | 東京勞<br>働同志會                                                              |
| 동同志會               | 一九一七年五月   | 東洋靑<br>年同志會                                                              |
| 위의 團體中             | 東京에서      | 이해에 學者, 宗教人을 招<br>請하여 年六回の 講演會<br>를 開催하고 十月에는 新<br>教會에서 2月3日主日에<br>靜子였다. |
| 組織되어 活動한 有力한<br>것은 | 東京朝鮮基督教靑年 | 를 開催하고 十月에는 新<br>教會에서 2月3日主日에<br>靜子였다.                                   |

위해獻金전달

부터 二・八獨立宣言「直」를 고무시켰다. 또 十一  
前까지의 이들組織과活月에는 親接部主催로 朝  
動을 檢討하고자한다. 活鮮基督教長老會  
用하는 資料가 總督府學師의 送迎會를  
警務局 하면, 김영섭은 朝鮮民族  
朝鮮民族  
順明, 金恩慈, 都連伊, 成  
을 協力하였다.

## 「歷史의 하나님」

—「2·8宣言에서 3·1과 解放으로—  
(이사야60: 1~3, 61: 1~2)

盧 政 一 牧師 (名古屋教会副牧師)

## 説教



史意識을 오늘 우리民族  
道이 어가 위하여 「2:8  
에서 3:1로」 이어진 歷史  
를 따라가며 聖書의 人教  
訓을 찾아갑시다.

精神을 2:8에서 3:1로  
연결시켜 8:15解放까지  
行進시키신 하나님을 기억  
해야 합니다. 3:1宣言과  
運動의 도화선이 2:8宣  
動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 二、2·8宣言에서

2·8과 3·1은 평범한 숫자이다. 그러나 歷史를 안고있는 우리民族에게는 歷史의인 숫자요 遺産의 날이다. 한편 相對的인日本 歷史에서는 괴로운 날로 기억할지? : 이제 2·8宣言의 歷史的意味를 찾고 아봅시다.

歷史의 遺産을 보이는 歷史와 보이지 않는 歷史를모두 간직하엿지않습니까? 70만 在日韓國人동포를 歷史의인 遺産만이 아니라 民族의 遺産이니오 再發見하며 사랑하保存합니다.

放치키시며 惠恩의 해로운 도하심 아니엿던가? (사61·1·3)·하나님은 不能을 可能케하시요 自由의 하나님이시요 解放의 하나님이시며 平和의 하나님이십니다. 歷史의 創造者이시요 섭리자이십니다.

### 三、3·1 宣言에서

#### 四、解放의 하나님

#### 四、解放의 하나님

韓日合邦인 一九一〇年입니다. 이때 民族의 悲劇을 가슴에 안고 民族의 未來를 爲하여는 대비워야 한다는 비전을 키우기 위해 海外日本東京을 中心해 모여 있는 靑年들이 있었으니 이들 모임이 東京基督教靑年會(一九〇六年創立) 그후 朝鮮基督教靑年會(YMC A), 朝鮮留學生學友會(一九一一年), 朝鮮學會(一九一四年), 朝鮮女子親睦會(一九一六年) 등이 各各오이며 民族의 獨立을 爲하고 있었으니 하나 님은 執掌하시다.

2.8宣言書에는 學生代表는 崔八鏞은 비릇한 名이었고 송계백이 자기 모자속에 감추어 本國의 독립운동자들과 연결되니 같은날 宣言과 運動을 계 회도했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에 따라 本國에서는 3월 1일 宣言과 運動이 이루어졌다. 이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의 역사였음을 歷史的으로 告白하며 3.1宣言의 精神을 오늘날의 民族統一로 연결시켜가야 할 使命을 인

歷史의 門이 열린날이요 解放의 날입니다. 고난의 歷史에서 기쁨으로 不自由에서 自由를 잃었던 땅에 봄이 왔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날안인가? 이사야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의 상한자를 고치며 포로된자에게 자유를 갠히자에게 놓임을 여호와와 은혜의 해, 신의 나눔을約束하였는데 (60:1, 2) 이만씀이 바

의  
 은혜입니까?

의  
 은혜입니까?

다. 法主義로 門을 열게 되었으니 一九一九年 二月八日였다.

이사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큰 宣言을 하였는데 이 宣言이 救援史의 大行進으로 解放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하나 님의 救援의 方向을 2·8 宣言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歷史 같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도

界에 宣布되었으니 民族의 이요 世界的이며 歷史的인 結果이요 行動이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식민지로 가혹한 政治的 탄압, 經濟的 착취, 文化的 말살, 社會的 차별, 宗教的 탄압을 받으며 國權 상실과 民族의 悲哀를 전감하고 있었다. 이사야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사 60:2)의 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표현했듯이 당시 우리 민족도 똑 같은 현실이었다. 여기에 도

五、在日韓國人으로 우리들은 오늘 여기日本에 살고있다. 民族은 解放되었으나 70만 在日韓國人은 歷史의 상처를 남기고 여기서 살고있다. 하

나님이 왜 日本에 남겨 놓으셨는가?를 다시물으 며 보이는 歷史와 보이 지 않는 歷史의 遺産을 信仰과 民族、平和와 人類에 연결시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소수자의 祈禱와 歷史를 연결시켜 未來 歷史를 向하게 하십니다.

＜電々公社認定＞  
**構内交換機・ボタン電話**  
 松下通信工業(株)専売代行店  
 (株)ナカヨ通信機特約店  
 東亜特殊電機(株)特約店

株式 高德通信工業  
会社

代表取締役 李 建 豪

(名古屋南伝道所 長老)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 (052) 431-3156 (代)

FAX (052) 431-3190

卸製造服人婦

めぐみ  
恵商店

代 表 金 容 秋

(大阪教会 長老)

TEL (06) 245-5306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557地下1階南側

〒541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

# 牧山グループ

牧山通商株式会社, ホテル牧山, 百貨店  
社会福祉法人 和奉財団, 牧山福祉財団  
等 他十社

会 長 崔 誠 元

(東京教会 長老)

서울連絡処：ホテル牧山 02-739-2917

### 《在日同胞のホテル利用者には30%割引》

# 聖誕節讚揚礼拝

## 婦人会西部地方会連合会

一九九〇年十二月二日(主)午後七時 神戸教会에서 百十五名이 参加한 가운데 第三回 크리스마스 讚美 礼拝가 婦人会西部地方連合会主催로 開催되었다.

第一部礼拝는 李芸求會長의 司會로 婦女部長 金德化牧師의 「오직 믿음」(디도書, 三·三·七)이 題目의 說教가 있었다.

第二部는 李鐘殿牧師의 指戶東部教会協力牧師의 指揮와 金裕子姊妹(武庫川教会)의 伴奏로써 西部地方婦人会 十二教会中 六教会에서 會員 二十四名이 參加한 連合聖歌隊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讚揚하였다.

이세상에 救世主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 祈禱하였다.

과 은혜에 感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讚揚해 실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榮光을 드리었다. 찬양과 恩惠와 感動은 너무나 豊饒하여, 이날에 하나님께 바친 獻金은 神戸東部教会 建築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비록 練習期間은 짧았지만 指揮者 李鐘殿牧師의 獻身的인 指導와 康淑子青年部長의 受苦 및 各教会 婦人會員과 聖歌隊員들의 積極的인 協力和 精進 없는 祈禱로써 恩惠 充滿한 크리스마스 讚揚礼拝를 갖게 되었다.

(通信 金福分書記)



聖誕節 讚揚礼拝에서 奉仕하는 連合聖歌隊

イェスは十字架の苦しい中にあつても息子としての責任を忘れることなく、母に對する奉養の義務を愛弟子ヨハネに委託した。家庭において両親をはじめとして年長者を敬うことや指導者を尊重する生活は信仰の美しい表現である。

(3) 兄弟姉妹間の倫理

家庭には兄弟姉妹がいる。父母と子女との間には利害関係が超越されるが、兄弟姉妹の間には利害関係のゆえにしばしば気まずくなる場合が多い。兄弟姉妹間の倫理をよく守らないと、ささやかなことで不平とねたみが介在し、争いが生じるのである。父母兄弟姉妹がむつまじく生活する家庭こそ美しい家庭である。詩篇の記者は「兄弟が和合して共に居るのはいかに麗しく楽しいことであらう」(詩133:1)と歌っている。今日の核家族の時代にこの詩歌

の意味は深い内容を示唆している。また詩人は「あなたの子供たちは食卓を開んでオリブの若木のようにであらう」(詩133:3)と歌っている。一家庭にはエサウとヤコブのようにその性格が全く異なる兄弟(創25:23)もあり、ミリアムとアロンが兄弟モーセをそしめたように兄弟姉妹との間にはしばしばねたみと争いがある。疲れる人生の旅路には時またむずかしい問題も生じるのであり、自分ひとりだけで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場合もある。そのような時に兄弟姉妹がお互いに助言をし助けるならばむつまじい生活ができるであらう。

では兄弟姉妹の間で守るべき倫理とは何なのであろうか? それは第一に「愛情」である。「こうべ」に注がれた尊い油がひげに流れアロンのひげに流れ、その衣のえりにまで流れて下るようだ」とあるように、またヘルモンの露がシオン山の山に下るよう(詩133:2、3)。夜に降る露が草木を潤い生命を与え、父母から受けられた愛情が兄弟姉妹の間に流れるとき、兄弟姉妹はむつまじく生きられるのである。

第二に、それは信仰である。信仰によって結合される家庭はまさに地上における天国であるが、信仰によって団結されない兄弟姉妹が共に生活する家庭は、そこがまさに地獄である。どんなにむずかしい問題があっても兄弟姉妹が一致団結して協力する信仰があれば解決できないものはない。

第三に、それは忍耐である。同じ父母から生まれた兄弟姉妹であっても、それぞれ個性も性格も異なるし、趣味と好悪も異なるのである。

聖 丘 / 강대·사회상·심자가·성찬·제단상·예배용 긴의자·주보대  
성 의 / 목사카운·후두·석사·박사·학사카운·성가대카운·기타  
예배용품 / 성찬기·세례기·촛대·헌금바구니·성종·예배용 의자방식·기타  
기 타 / 식탁 및 의자·다목적용 탁자 및 의자·민방위교육관의자 및 교탁

●서울전시장 / 〒135-042 서울·서초구 반포동 1-10 경남소평5층13호 ☎593-5771·2, 533-7911·FAX ☎533-7912  
●부산·공정 / 〒445-800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가창리 123-1 ☎(0339)73-0935-6  
●부산지사 / 87-4888-1184 ●전주지사 / 83-0025-6-3979 ●청주지사 / 2-3874-3-1248  
●군산지사 / 3-7142 ●대구지사 / 253-4383  
●일본지사 / 大阪市 中央区 谷町9丁目2-27, 東カイト産業谷九ビル7F 703號, ☎06(768)9762-06(771)5917

성애성구사 문서·주보작성 및 편집·설교 및 자료관리  
·교적부관리·예산제정관리·심방관리



中部地方会諸職研修会

特講①은 金桂吳牧師의 「個人伝道の實際」을 伝道는 예수님의 地上命令이니 끝까지 前進하자고 했으며 伝道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니 日本에게 독교인 1%이니, 더욱 전도해야 할 使命을 갖자고 했다.

特講②는 朴永吳牧師가 特講③은 盧政一牧師의 「個人尋訪과 相談」에 對한 것으로 첫째 平信徒란 무신앙인가? 에 對하여 平信徒란 레이티, 레이맨인데 이말은 헬라어 「라오스」요 히브리어 「암」이다. 곧 「하 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니 선택된 자, 성별된 자, 사명이 있는 자란 意味가 있다. 사도바울은 라오스중에 使徒로 予言者로 教師로(고전12:28, 30) 「주신 은혜대로」(롬12:6, 8), 그리스도의 몸인 教会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근거를 따라 教会가 제도화되면서

담당했는데 自身の 干證으로 牧師가 되는 과정도 금식기도로 神學生때도 祈禱에 따라 日本宣教師랑 祈禱中에 큰 능력,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간증했다. 특별히 이사야(59:6, 7) 마태복음(9:29)을 牧會中 祈禱의 근거성구로 삼는다고 소개하고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

特講③은 盧政一牧師의 「個人尋訪과 相談」에 對한 것으로 첫째 平信徒란 무신앙인가? 에 對하여 平信徒란 레이티, 레이맨인데 이말은 헬라어 「라오스」요 히브리어 「암」이다. 곧 「하 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니 선택된 자, 성별된 자, 사명이 있는 자란 意味가 있다. 사도바울은 라오스중에 使徒로 予言者로 教師로(고전12:28, 30) 「주신 은혜대로」(롬12:6, 8), 그리스도의 몸인 教会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근거를 따라 教会가 제도화되면서

감독, 장로, 집사로 세워진데 平信徒 執事는 「성고 奉仕」하는 職分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奉仕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教会)을 세우기 위해(엡4:12, 13)에서 職分의 役割을 찾았을 것이다.

尋訪과 相談은 聖徒를 온전케 하는 역할 아닌가? 尋訪과 相談은 牧役者에게 연결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제직은 協力者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하 나님의 신방파라(創1:1, 2) 天使의 尋訪파라(創18:2) 예수님의 신방파라(마태10:11, 15), 성령의 명령파라(행1:8), 教会와 敎人간의 연결자, 상담안 내자, 지도자로 母性的인 돌봄과 關心을 나누는 諸職이 되어 하나님께 榮光 敎會에 德을 個人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도록 마쳤다.

中部地方都諸職83名은閉會祈禱者 李忠周牧師의 기도 行事を 마쳤다.

(報告者 盧政一)

### 諸職訓練の手引書 ④

## 諸職の家庭生活 VIII

尹 宗 銀 牧師 (横浜教会)

このような兄弟姉妹の間の意見の衝突もさけられないこともある。そのような時、問題を解決する方法は「忍耐」しかない。それ故にヤコブの手紙の著者は「兄弟たちよ。苦しみと耐え忍ぶことについては主の御名によって語った預言者たちを模範にするがよい。忍び抜いた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と、わたしは思う。あなた方は、ヨブの忍耐のことを聞いている。また、主が彼になされたことと、主の結末を見て、主がいかに慈愛とあわれみに富んだかたであるかがわかるはずである(ヤコブ5:10, 11)。

また「試練を耐え忍ぶ人はさいわいである」(ヤコブ1:12)兄弟姉妹がお互いに



### 不 動 産 業 務 全 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 太 栄 企 業 株 式 有 限 公 司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

### 青 丘 文 化 社

代表 張 恒 星

〒273 船橋市宮本6-25-13  
TEL 0474(24)7461  
FAX 0474(24)7469

### 성애성구사

성 구 / 강대·사회상·심자가·성찬·제단상·예배용 긴의자·주보대  
성 의 / 목사카운·후두·석사·박사·학사카운·성가대카운·기타  
예배용품 / 성찬기·세례기·촛대·헌금바구니·성종·예배용 의자방식·기타  
기 타 / 식탁 및 의자·다목적용 탁자 및 의자·민방위교육관의자 및 교탁

●서울전시장 / 〒135-042 서울·서초구 반포동 1-10 경남소평5층13호 ☎593-5771·2, 533-7911·FAX ☎533-7912  
●부산·공정 / 〒445-800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가창리 123-1 ☎(0339)73-0935-6  
●부산지사 / 87-4888-1184 ●전주지사 / 83-0025-6-3979 ●청주지사 / 2-3874-3-1248  
●군산지사 / 3-7142 ●대구지사 / 253-4383  
●일본지사 / 大阪市 中央区 谷町9丁目2-27, 東カイト産業谷九ビル7F 703號, ☎06(768)9762-06(771)5917

성애성구사 문서·주보작성 및 편집·설교 및 자료관리  
·교적부관리·예산제정관리·심방관리

# 岡山教会 入堂礼拝

## 全教会に募金 呼訴

岡山教会(趙尚浩牧師)入堂礼拝が、十二月二十三日、厳粛に挙行되었다。岡山教会は二十三年前、総会の宣教六〇周年記念事業として、岡山に散在하고 있는 同胞들에게福音을 伝하며、오늘에 이르렀다。그러나 礼拝堂이 老朽化・狹隘하여、七年前부터、새礼拝堂 建築을 위해 祈禱하며 委員會를 組織、昨年七月十四日(初)岡本建築事務所와 施行契約을 맺고、八月六日 起工 礼拝를 드렸다。새教会堂은 總約八九坪으로 總工事費는 七千六百十萬圓。一層은 教育館 兼食堂、駐車場、二層 礼拝堂、通訳室、母子室、三層 牧師館。工事費中 四千八百萬圓에 總全教会의 同參을 바라고 있다。



入堂 및 聖誕祝賀礼拝를 드리는 岡山教会員들

2回の講座에서 2회에 肉眼은 自然을 볼 수 있고 心眼은 道德과良心을 보고 느끼게 하며 靈眼은 하나님과 하나님과를 볼 수 있으며 聖書는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딤후3:14-16) 聖書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國을 세워 주셨나?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聖書를 읽고 祈禱하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행1:8) 말에 조심하는 이들이(야3:6-10) 地上的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 家庭에서 礼拝, 社會에서 平和, 世界에서 그리스도의 証人이 되자고 호소했다。聖書研究는「하나님의 形像」(創1:26-28)을 中心으로 盧政一牧師가 講座를 담당했다。새 하늘과 새 땅의 主人은 누구인가? 우리들을 위한 새 땅 새 하늘이라던 創造者 하나님과 人間의 關係를 再확인해야 한다。하나님의 形像(かたち)는 創世記一章26-27節、創世記五章1-2節、九章6節에 나오는데 創造의 語「바라(Bara)」라는 말의 特別한 意味는 人間에게만 相을 뜻하며 中근동에서 神의 形像은 王의 形像과 同一한 意味였으니 人間은 神과 特別한 關係로 男女로 創造되었다。그러므로 王 같은 存在와 위치를 임하여 버리지 말고 존엄성, 평등성, 人權, 책임, 生命의 保存, 礼拝관계, 兄弟愛, 歷史意識을 회복해가자는 내용으로 결론지었다。

① 總會의 歷史 在日大韓基督敎會는 昨年十月十日「私たちに新しい力を給うキリスト」という標語を持って宣教八十周年を迎えました。その歴史の起点を一九〇八年においています。東京で留學生が中心になり定期礼拝を守り、その出席者は一四〇名、うち、受洗した敎會員が四〇名、聖書研究の出席者は約一〇〇名でありました。そこで礼拝を導く指導者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一九〇九年、大韓イエス長老敎會が派遣した最初の牧師である韓錫晉氏を迎えました。一九三九年から四五年八月十五日までの大韓敎會は受難期としての歴史をもっています。多くの牧師と長老たちが日警によって檢査され、獄中の苦杯をのまざるをえなかったのです。一九四一年には日本基督敎團發足に際して、一方的に強制編入させられました。従って日本敎會の牧師が在日大韓敎會の主管者となり礼拝も日本語で行うようになり強いられました。この日本語強制的の問題は日本基督敎會議長富田満の朝鮮キリスト者に対する神社参拝強制工作と共に、必ず銘記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事だと思ひます。神の摂理の中で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九日

② 總會員の現狀 在日大韓敎會は多様化する共同體と二重言語の共同體になりました。人口動態は、一世は15%を切り、圧倒的多数は二世・三世であり四世も生まれてきています。日本人との結婚によって日本人の兄弟姉妹が在日大韓敎會の共同體に加わる傾向が増してきています。さらには、最近、結婚や就労等の事情で韓国より来た若い一世たち等、極めて多様な信仰共同體になりました。この問題との関連において、在日大韓敎會における二重言語(韓国語・日本語)の問題があります。日本人の信徒と二世・三世の増加、成長と共に敎會協同體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爲に、説教や祈りなどにも日本語が導入されていく事になりました。神の言葉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に韓・日二つの言語を通して触れていく事は、福音の真理の多様な意味の発見を促し、その事は言語の混乱や風化をもたらすどころかかえって恵の多様な豊かさや體驗させる契機となると思ひます。中国の朝鮮族は五世の子供でも家や学校で朝鮮語を使い、高等教育を受けるに従って、中国語に切り替えて行くそうです。そうすると、二十歳ぐらいで完全なバイリンガルになります。しかし、日本の場合は逆であり、勿論その背景にはやはり在日韓国・朝鮮人の戦後民族教育に対する同化政策がある事を見逃す事はできないのです。



婦人會中部地方連研修會 參加者

婦人會中部地方連合會研修會が「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이라는 主題로 2月7日(木) 9日(土)까지 惠那かんば保養センター에서 34名이 모였다。開會礼拝는 尹玲愛會長司會로 聖經創世記一章一節-五節을 읽고「創造信仰」이라는 説教가 있었다。説教者 盧政一牧師(婦女部長)은 人生의 두問題는宇宙에 대한 問題이요、하나人間에 대한 問題인데 이 두問題를 바르게 보는 길은 創造信仰뿐이요、새롭게 사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고후5:17)라는 信仰으로라고 説教하였다。主題講師 金善泰牧師는

2回の講座에서 2회에 肉眼은 自然을 볼 수 있고 心眼은 道德과良心을 보고 느끼게 하며 靈眼은 하나님과 하나님과를 볼 수 있으며 聖書는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딤후3:14-16) 聖書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國을 세워 주셨나?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聖書를 읽고 祈禱하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행1:8) 말에 조심하는 이들이(야3:6-10) 地上的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 家庭에서 礼拝, 社會에서 平和, 世界에서 그리스도의 証人이 되자고 호소했다。聖書研究는「하나님의 形像」(創1:26-28)을 中心으로 盧政一牧師가 講座를 담당했다。새 하늘과 새 땅의 主人은 누구인가? 우리들을 위한 새 땅 새 하늘이라던 創造者 하나님과 人間의 關係를 再확인해야 한다。하나님의 形像(かたち)는 創世記一章26-27節、創世記五章1-2節、九章6節에 나오는데 創造의 語「바라(Bara)」라는 말의 特別한 意味는 人間에게만 相을 뜻하며 中근동에서 神의 形像은 王의 形像과 同一한 意味였으니 人間은 神과 特別한 關係로 男女로 創造되었다。그러므로 王 같은 存在와 위치를 임하여 버리지 말고 존엄성, 평등성, 人權, 책임, 生命의 保存, 礼拝관계, 兄弟愛, 歷史意識을 회복해가자는 내용으로 결론지었다。

閉會礼拝는 金宝培執事司會로 創世記二章21-25節을 읽고「뱀의 誘惑」이라는 題目의 盧政一牧師의 説教로 그리스도의 形像의 회복을 위한 4章19節) 해가자는 결단의 礼拝로 마쳤다。금번 研修會는 親交의 기회를 주고 盲人開眼會를 위해 측에서 10만圓의 献金을 드린 功績도 갖게 되었다。(報告 盧政一婦女部長)

### 教会教育シリーズ

## 今、人間をみつめて③

在日大韓敎會における敎會教育の立場より

朴 寿 吉 牧師(布施敎會)

### 2、在日大韓基督敎會 總會の人びと

#### ① 總會の歴史

独自の宣敎の歩みを始める為に日本基督敎團を脱退し、今日に至っています。解放後、多くの指導者は帰国しましたが、数名の敎職と残された三〇〇余名のキリスト者は各地に再建期の敎會の宣敎拠点を築いたのでした。在日大韓敎會は内なる成長と共に、エキシメニカル期の敎會として一九五五年十月、日本キリスト敎協會議會(NCC)の準會員として加盟しました。戦後、敎會は再建に没頭するあまり、寄留の民の苦悩や痛みを共に担う事ができたであろうかと反省し、一九六八年の宣敎六〇周年宣敎大会の標語として「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という主題を制定しました。それはこの敎會が差別されている人の基本的人權を獲得する働きを宣敎の働きに加えることであります。一九七八年、宣敎七十周年を迎えては主題を「われわれの希望にいまし給うイエス・キリスト」としました。一九八四年二月八日、在日大韓基督敎會總會は日本基督敎團と宣敎協約を結びました。この協約はもともと積極的な神學的意義があり、普遍的敎會の姿を取るようになることであります。

(KCPチエン・エアポートイワイ)

## 聖和商事

タイ王室に果実納品(20年間継続中)  
大阪国際航空全機内食果実納品

代表者 禹 永 吉

大阪府池田市空港1-7-15(大阪国際空港前)  
TEL(店) 06-843-0816  
TEL(自) 06-855-3865

敎會・敎會員の保険は★全てお任せ下さい  
全国どこでもOK! 事故の時安心!

現代海上火災保險株式会社  
住友海上火災保險株式会社  
ALICO・JAPAN  
日本生命保險相互會社 取扱

## 聖光保險事務所

代表 金 聖 次  
(西成敎會 執事)

〒596 岸和田市小松里町1-26  
TEL 0724-43-1641  
FAX 0724-43-7975

## COMPUTER の専門店

### ★ホサンナ コンピューターサービス(有)

代表取締役 金 泰 源  
(沖繩敎會 長老)

本社: 沖繩県北谷町字浜川 8-5  
電話: 098936-2030代  
FAX: 098936-6468